

전북 '작은 영화관' 문화 갈증 해소 특특

7개 시·군 작년 관람객 24만1000명...전북 전체 3.6%

군민회관 등에 50석 규모...'암살' 등 최신작 상영 인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가설 극장이 들어서면, 온 동네에는 때마침 잔치가 열렸다. 여름밤, 마을 주민들은 가설 극장에 모여 흐릿한 화면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영화 속 세상에 감탄사를 터뜨리곤 했다. 이미 추억이 돼 버린 농촌마을이 풍경이다.

영화관 하나 없던 전북지역 농촌지역에 '작은 영화관'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최근 이들 영화관에서 '암살'이나 '베테랑' 등 최신작을 선보이는 등 농촌 문화 공간 역

활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0년까지 전북에서 영화관이 있었던 곳은 전주,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뿐이었다.

특히 인구 65만여명인 전주에는 롯데시네마 8개관을 비롯해 60여개관이 운영되거나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인구 1만명당 1개꼴인 셈이다.

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하는 완주군 등을 비롯한 전북지역 나머지 10개 시·군에서

는 영화관이 없어 영화를 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들 주민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도시로 나와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앞서거나 뒤서거나 생긴 '작은 영화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전북도와 해당 시·군은 적자를 보는 농촌의 시내버스를 지원하듯 관람석 50석 안팎의 작은 영화관을 군민회관이나 국악원, 문예회관 등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설치하기 시작했다.

5년 전 장수군(한누리 시네마)에 처음 들어선 작은 영화관은 이제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등 8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반응도 뜨겁다. 최근 개관한 진안 '미야산골 영화관'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작은 영화관의 지난해 관람객은 총 24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상업영화 관람객 663만명의 3.6%를 차지해 작은 영화관이 단기간에 시골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 잡았다. 특히 무주와 장수, 임실 등 3개 지역 작은 영화관의 관람객 규모는 해당 지역주민 수를 웃돌기까지 했다.

또 지난해 도내 작은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는 총 486편으로 2013년 167편에 비해 3배가량 급증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성인 76% "전남 섬 가고 싶다"

전남도, 전국 1000명 설문

미관 보존·편의시설 확충 위해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0명 가운데 761명이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에 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3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민선 6기 브랜딩사업인 '가고 싶은 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 지난 8월 20일까지 1개월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 유·무선 혼합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설문 내용은 '가고 싶은 섬' 인지도 및 가고자 하는 의향, 테마와 콘셉트,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섬 여행 행태 및 선택 이유, 섬 여행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조사 결과 국민 1000명 가운데 761명(76.1%)이 '가고 싶은 섬'에 '가고 싶다'고 밝혔다. 섬에 다녀온 여행자가 가운데 82.3%는 '다시 가고 싶다'고 응답하고, 섬에 가 본 적이 없는 여행자가 가운데 68%도 '가고 싶다'고 의향을 표시했다.

섬 여행은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길 원하고, 여행경비는 1인당 평균 10만원 내외로 지출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섬 여행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행 경비 등 경제적 부담'(8.2%)보다는 '거리가 멀고'(17.1%), '건 강문제'(12.5%)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10.6%)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 '가고 싶은 섬'을 어떻게 가겠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남 섬의 수려한 미관을 잘 보존'(31%)하면서 '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27.2%)는 의견이 많았다.

'가고 싶은 섬'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에 바라는 점은 '섬의 수려한 미관을 다치지 않도록 개발'(31.9%), '편의시설 확충'(24%)에 중점을 두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사됐으며, 섬 여행정보는 '인터넷'(44.1%)을 통해 얻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희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 앞으로 '가고 싶은 섬'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 오는 매력적인 섬 가꾸기에 나서겠다"며 "섬 여행객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신뢰도는 95%, 오차범위는 ±3.1% P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고창 배 미국 수출 첫 선적 기념식...본격 북미 시장 공략

28t 8000만원 상당 원양배

내년 3월까지 600톤 수출 계획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고창배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사진>

고창배영농조합법인(대표 박형남)은 30일 "지난 27일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대미수출을 위한 첫 컨테이너 선적 작업과 기념식을 실시하고 수출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물량은 28t으로 8000만원 상당의 원양배를 선적했으며,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총 600톤을 수출할 계획이며 약 16억원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배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성장해 모양이 고르고 당도가 높으며 껍질이 얇고 식감이 뛰어나 인기가 높다.

지난 2003년부터 수출을 추진해 지금까지 캐나다, 미국, 대만, 싱가포르, 괌 등에 수출했다.



미국 수입사인 ㈜리마글러벨은 "미국에서도 배가 생산되지 못하고 품질 면에서 고창 배를 따라올 수가 없다. 예전부터 수입을 진행하였는데 풍부한 과즙이 좋다"

고 평가했다. 고창배영농조합 관계자는 "고창의 좋은 기후여건과 조합원들의 정성어린 재배로 올해 배 수확량이 늘 전망이다"며

"전 세계적으로 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고창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훈석 ghs@kwangju.co.kr

상습침수 부안 고부천 2020년까지 홍수방지사업 추진

동진면~줄포면 14.3km 폭 확장

전북 부안군을 흐르는 고부천 유역이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안군은 30일 기획재정부의 재정계획

수립으로 2020년까지 모두 1617억원을 들여 고부천 홍수방지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인 고부천은 홍수방지사설이 부실해 해마다 하천 유역의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반복돼 왔다.

사업주체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각종 홍수방지사설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연차계획을 세워 부안군 동진면에서 줄포면까지 길이 14.3km의 하천 폭을 64~120m로 넓히고 교량·

양상장·배수갑문을 확장해 주택과 농경지 침수를 예방키로 했다.

이에 앞서 부안군은 고부천 유역의 홍수방지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1년 고부천 유역에 있는 지방하천인 하장천 2.6km를 14.3km로 늘렸다.

부안군 관계자는 "고부천과 하장천의 홍수방지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던 상습침수 해소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성광기업, 항구적 노·사 평화선언·임금 위임식

광양제철소 열연·냉연 및 도금공장 전문지원외주파트너사인 ㈜성광기업(사장 박병민)이 '항구적 노·사 평화선언 및 3개년 임금 위임식'을 가졌다. <사진>

지난 31일 성광기업 노사는 항구적 노·사 평화선언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상생의 노·사관 계로 전환하고, 지역 및 경제발전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성광기업 노·사는 소통과 신뢰를 기

반으로 ▲배품의 경영 ▲준중하며 사랑하는 행복 경영 ▲술선수법의 섬김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성광기업은 최근 회사와 무관한 기간 파업으로 자칫 노·사간 갈등이 심화돼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노사 안정화로 지역사회의 염원과 인도적 차원을 고려한 노·사간 대화협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i4079@

투데이 옥션

부동산거래 추천물건

- 광주 두암동 주유소부지 4차선 대로변 코너 위치 아파트와 주택가 상권 신축 건물부지적합 대지 677㎡ 건물 350㎡ 감정가 11억 8천 최저가 11억 8천
- 광주 동구 학동 근린건물 전대병원 맞은편 위치 병원,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추천 지하 2층 ~ 지상 5층 대지 456㎡ 건물 1779㎡ 감정가 23억 2천 최저가 16억 2천
-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5번차로 공장 건물 4동 기계기구 포함 대지 3495㎡ 건물 2308㎡ 감정가 19억 7천 최저가 13억 8천
- 광주 북구 일곡동 근린 상가주택 사거리 코너 위치 지하층 ~ 지상 5층 대지 755㎡ 건물 1360㎡ 감정가 16억 최저가 11억 2천
- 광주 북구 각화동 상가건물 각화동 금호타운 맞은편위치 요양병원 추천, 지하1층 ~ 지상3층 대지 1115㎡ 건물 1749㎡ 감정가 22억 3천 최저가 15억 6천

경공매전문가 이현석
010-9963-6345

다이아 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수암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품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평동공단 공장 대 1,650㎡, 건 920㎡ 매 11억7천만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서구 서창동 토지 12,000㎡ 매 38억(타운하우스 최적)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동명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1,400㎡ 매 23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북동 답 1,000㎡ 매7억6천만원(고물상, 투자적합)
- 벽진동 1층주거지역 대지 840㎡ 3억45천만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 10억5천(창고, 차고지 적합)
- 수북면 대방리 4,641㎡ 매 8.4억(전원주택부지 적합)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 (주말농장, 가족모 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산 청룡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전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 010-5536-0382

SANGMU BUSINESS CENTER

비즈니스의 새로운 환경을 열어줍니다.

상무비즈센터 광주 서구 상무시민로103(치평동 1210-4)
(구. 남영비즈타워) 본사 062)382-0304 임대관리 010-2633-1100
대한시스템 유한회사 관리실 T. 062)381-5551 F. 062)384-5551